

빌딩숲의 숲래

정종화 지음

계몽사 / A5신 / 192면 / 1500원

제6회 계몽사 어린이문학상 장편동화 · 소년소설 부문 수상작.

그리운 엄마를 찾기 위해 고아원을 뛰쳐 나와 빌딩숲의 숲래가 된 학수, 서 있는 나무로서 곳곳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뱅글이, 그리고 뱅글이의 고운 마음으로 잃었던 부모를 만나게 되는 숲돌이.

비록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살지만 메마른 도시의 한복판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 세 아이의 우정과, 같은 처지의 어린이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담뱃 배어 있는 작품이다. 세 주인공들의 풋풋한 우정과 용기가 어린이 독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준다.

타임머신

H.G.웰즈 지음 / 김진욱 옮김

범우사 / A5신 / 210면 / 2000원

국민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새로이 출간된 「범우피닉스문고」 제1권. 「타임머신」은 영국의 소설가이며 문명비평가로 널리 알려진 H.G.웰즈의 대표적 공상과학소설로, 1895년에 첫 출간된 이래 오늘날까지도 널리 읽히는 작품이다.

타임머신을 발명하여 80만 2701년후의 세계로 날아간 과학자가 그곳에서 경험하는 갖가지 괴상하고도 신기한 일들을 그린 이 작품은, 어린이 독자들에게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생생하게 보여주며 인류의 미래와 운명을 진지하게 생각케 한다.

알록새와 빛나래호

유영선 지음

건지사 / A5신 / 190면 / 2500원

무지개빛 날개와 풍지에 빛을 달고 날아오르는 신비의 새 알록새. 어느날 조그만 섬마을에 알록새가 나타나자 은마를 비롯한 온 마을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파문이 일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상스런 기쁨을 남겨주는 알록새. 한밤중 알록새의 인도로 기숙사를 몰래 빠져나와 산 속의 동굴로 무리지어 몰려갈 때도, 아이들은 알록새가 주는 빛으로 하여 용기와 기쁨을 잃지 않았다. 그 산 속에서 아이들은 좀더 큰 세상, 좀더 새로운 세상을 찾아 떠나기 위해 칠푼굴과 통나무, 형겼조각을 이어 빛나래호를 만들어 낸다.

달려라 곰돌이

편집부 엮음

문공사 / B6변형 / 각권34면 / 1500원

3세부터 6세까지의 유아들을 위한 그림책. 재미있는 그림들을 위주로 하고 있어 처음 책을 대하는 어린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했으며, 어린이들의 행동과 사고를 함양시키기 위한 교훈적인 글들을 수록했다.

「달려라 곰돌이」편은, 메리 크리스마스 · 깨끗이 씻어요 · 안녕히 주무셔요 · 길을 잃었어요 · 사이좋게 그네타요 · 풍선껌을 불어요 등 6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까꿍놀이 · 생일을 축하해요 · 빨간 공이 도망가요 등을 담은 「달려라 호돌이」편 3권도 함께 출간됐다.



파리박사 데츠조

하이타니 겐지로 지음 / 문용수 옮김

햇빛출판사 / A5신 / 232면 / 2000원

변두리 공업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작은 국민학교에는 그 근처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의 아이들이 많이 있다. 이중에서도 가장 문재아로 두드러진 아이가 바로 데츠조다. 그는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말도 안하고 글씨도 못쓰고 비위생적이고 더러운 파리를 기르며 산다. 그러나 데츠조의 담임인 고다니 여선생은 헌신적으로 그를 도와, 데츠조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고 글을 쓸 줄 알게 함으로써 새로운 인간의 길을 열어 준다.

어린이들에게는 밝은 희망과 용기의 중요성을, 어른들에게는 우리 사회의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선도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장편동화. 국제 안데르센상 수상작.

어린이 법구경

이향봉 옮김

불교문학 / A5신 / 254면 / 2800원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재미있는 우화와 그림을 곁들인 법구경. 법구경은 팔만대장경 중에서도 가장 널리 읽히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단순하고 소박한 표현 속에 명쾌한 지혜와 진리를 담고 있다. 원전은 23매듭 423마디의 말씀으로 엮여져 있으나, 이 책은 그 중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146마디 말씀만을 가려서 옮겼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원이 된다' '미움으로써 미움을 갚으면 미워하는 마음은 끝내 풀리지 않는다' 등의 말씀들을 적절한 우화들을 통해 재미있게 풀이하고 있다.

뛰자 달리지

홍윤기 지음

현암사 / A5신 / 284면 / 2600원

신나는 여름방학. 양천마을에서 서울로 올라온 주먹 쉰 '주먹'과 물을 많이 먹는 하마같은 '마하'. 서울에서 시골로 놀러온 개구장이 피보 '지하철', 짱구머리 '장구' 그리고 똥똥이 '똥보'. 한쪽은 서울의 골목길을 뛰어다니고, 또 한쪽은 냇가에서 고기잡고 갖가지 모험을 벌이느라 하루 해가 짧기만 하다.

농촌과 도시의 어린이들이 낯선 세상에 뛰어들어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한편 우정과 사랑을 다져나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린 장편동화로, 구김살없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는 작품이다.

요술망원경

이효성 지음

가나출판사 / A5신 / 208면 / 2000원

지혜는 왜 지식보다 나은가? 깨끗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 짜증은 왜 생기며, 시기 · 질투하는 마음은 왜 일어날까? 어린이들이 생활하며 느끼는 여러가지 일들을 알기 쉽게 안내한 철학동화.

동화의 주인공인 한철이가 집과 학교 주변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철학적인 문제들을 살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다루고 있다. 「거울 속에서 사는 아이」에서는 '나'는 누구이며 자기발견이란 어째서 필요한가, 「에스 오 에스」에서는 사람이란 혼자서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임을 재미있게 풀이해나가고 있다.

고래목장

김성목 지음

독서지도회 / A5신 / 156면 / 1500원

어린이들에게 과학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무한한 상상력과 호기심, 탐구심과 용기를 불러 일으키는 흥미진진한 과학동화.

바다 밑바닥에 있는 해저의 대목장을 관리하기 위한 거대한 해상기지 로콜호. 이곳에는 해양연구소와 화학연구소, 헬리콥터와 제트기의 비행장, 여러가지를 만들 수 있는 기계공장 등이 있어 약5천명의 승무원들이 살고 있다. 이 로콜호는 서기 2060년을 맞은 지구의 과학자들이 고래의 멸종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한 기지이다. 신비로운 해저세계를 탐험하고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과학자들의 노력과 활동을 그린 작품.

당나귀의 피

한국아동문학연구소 엮음

한림출판사 / B6변형 / 46면 / 1200원

숲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를 뽑는 대회가 열리게 됐다. "내가 가장 아름다운 새로 뽑혀야지!" 새들은 모두 이런 생각을 하며 몸치장에 바쁘지만, 까마귀만은 슬픈 얼굴로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새가망고 흥한 털이 부끄러워 까마귀는 얼른 연못으로 날아가 다른 새들이 떨어뜨리고 간 깃털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온몸에 여러 새들의 깃털을 잔뜩 꽂고 나타난 까마귀가 다른 새들의 부러움을 받지만, 결국 남의 깃털로 치장한 사실이 밝혀져 창피를 당한다는 「놀림감이 된 까마귀」 등 이십 우화 7편을 수록했다. 강미순 그림.

무지개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엮음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 A5신 / 138면 / 1500원

1980년에 출간되었던 교본의 내용을 대원들이 새롭게 흥미를 갖고 활동할 수 있게끔 개편했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시원한 바람, 상쾌한 풀 냄새, 아름다운 새소리 들리는 정다운 야외로 하이킹을 가거나 직접 새집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유년대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을 상세히 소개했다. 내용 뿐만 아니라 그림도 원색삽화로 바꾸어 유년대 활동을 더욱 즐겁고 생기있게 안내하고 있다. '유년대원이 되려면' '무지개 대원이 할 일' '진급·승진·취미과정' '부모님에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허수아버가 된 허수 아버지

박상재 지음

예림당 / A5신 / 112면 / 2500원

청봉산 기슭 농촌마을에 지독한 게으름장이 살고 있었다. 마을사람들은 그를 허수 아버지라 불렀는데, 그의 아들이름이 허수였기 때문. 그는 아무리 바쁜 농사철이 되어도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놀기만 한다. 어느날 밤 늦게까지 술에 취아떨어져 새막 위에서 자고 있던 허수 아버지는, 버구경을 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온 청봉산 도깨비와 마주치게 된다. 도깨비들은 게으름장이 허수 아버지를 퐁퐁 묶어다가 논 가운데 세워 놓고 요술망망이를 휘둘러 허수아버를 만들어 놓고 마는데...

「허수아버가 된 허수 아버지」 등 14편의 짧은 동화를 컬러 삽화와 함께 수록했다.



동녘호의 모험

C.S.루이스 지음 / 전경자 옮김

성바오로출판사 / A5신 / 228면 / 2300원

루시와 에드먼드, 악동 유스타스는 어느날 벽에 걸려 있는 그림 속으로 빨려들어가 나르니아의 왕 카스피안의 배에 오르게 된다. 이들은 동녘호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사라져버린 일곱명의 영주들을 찾아 아슬란의 땅으로 향한다. 폭풍과 모험 속에서 어린이들은 더욱 가까와지지만, 심술꾸러기 유스타스는 욕심 때문에 보기 싫은 용으로 변하고 마는데...

외다리 쿵쟁이들과 벌이는 우스운 마술이야기, 물에 닿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해버리는 사수의 호수, 은퇴한 별들이 쉬고 있는 이 세상 끝의 아름다운 섬의 경경들이 펼쳐지며 흥미진진한 모험이 전개되는 환상적인 동화.

아베이유

아나폴 프랑스 지음 / 신은영 옮김

한울문화출판 / A5신 / 140면 / 2500원

노벨상 수상작가 아나폴 프랑스가 성인들과 어린이를 위해 쓴 환상적 동화. 주인공 소녀 아베이유는 조르주와 한 집안에서 자라며 점차 사랑을 느낀다. 그러나 어느날 미지의 세계에 대한 유혹으로 산너머 호숫가로 소풍을 갔다가 아베이유는 난장이 꼬마나라로 잡혀가고 조르주는 요정의 나라 호수 속으로 잡혀간다. 이리하여 이들의 애달픈 모험이 시작되는데, 두 어린이의 착한 의지가 결국에는 난장이나라 임금의 마음을 사로잡아 아베이유와 조르주가 극적인 해후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 1882년 잡지를 통해 발표돼, 1889년 소설집 「진수성찬」에 수록되었던 프랑스의 대표적 동화작품.

솔피마을에 부는 바람

김영훈 지음

아동문예사 / A5신 / 172면 / 2200원

아버지의 미국지사 발령으로 동석이는 솔피마을 할아버지택에서 지내게 된다. 송산국민학교 5학년 1반으로 전학한 동석이는, 복잡한 서울에서 다니던 학교생활과는 사뭇 다른 새롭고 신나는 날들을 보낸다. 개울에서 메기도 잡고, 가을이 되면 바가지산에서 따온 밤을 구워 먹는 재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학교친구들의 우정과 할아버지·할머니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잊고 씩씩한 소년으로 성장해나가는 동석이의 이야기를 그린 장편동화.

곡식을 가꾸고 채소를 길러 내며 가난하게 살면서도 우리 것을 소중히 지키는 솔피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정겹게 담았다.

꿀벌의 친구

배익천 지음

대교출판 / A5신 / 208면 / 2200원

엄마·아빠 얼굴도 모르는 채 고아로 떠도는 소년 용이. 추운 겨울 어느날 용이는 친절할 퇴법장수 할아버지를 만나 함께 살게 된다. 철이 바뀔 때마다 다투어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 속에서 외롭지만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며 할아버지와 함께 꿀벌도 친다.

티없이 맑은 마음을 지닌 소년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와 웃음을 잃지 않고 곳곳이 살아가면서, 결국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를 찾게 된다는 이야기. 시골마을 사람들의 소박한 삶과 정서를 따뜻하게 그린 장편동화다.